

Global Green
Environment Company

KC NEWSLETTER

Vol. 60



IN THIS ISSUE:

ES Division
TWO 2010

LCIN
새로운 CEO

KC코트렐
P300 대상기업 선정



함께하자! TWO
달성하자! 2010



Top We One 2010

TWO 'TOP We One' TOP로 하나되어 TOP이 되자!
2010 매출 20% 향상, 원가 10% 절감

- 01 아이디어 내용 원가 절감, 품질향상, 생산성증대, 수익창출, 기타 수익성 개선
02 아이디어 유효기간 2014년 7월 10일 ~ 9월 30일
04 포상내용

제안포상

아이디어 제출 및 아이디어 최고 제안자 대상	포상대상	포상금액	포상기준	포상방법
제출	3천원/건	제출자 전원	현금	현금
1등(1명)	20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2등(1명)	10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3등(1명)	5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 아이디어 제출은 필수, 제안 제출은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포상

실행포상

포상대상	포상금액	포상기준	포상방법
아이디어 제안자, 실행자	양행효과외 1% (1년)	제안자 40%, 실행자 60% 지급	현금

• 1년 후, 포상

선택포상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 대상	포상대상	포상금액	포상기준	포상방법
추가 베스트	10만원	승인위원회	현금, 상장	
최우수(1명)	50만원	유형효과(50%)	현금, 상장	
우수(2명)	30만원	(제안서 효과)	현금, 상장	
장려(3명)	10만원	무형효과(50%)	현금, 상장	
		(창의성, 확산 가능성)		
선택 아이디어 (GO) 제출자	1만원/건	실행 결정 Idea	현금	

• 추가 베스트 및 선택 아이디어 제출자 우수,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는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포상

- 03 참가대상 KC 환경서비스, KC 한미산업, KC 에코에너지 모든 임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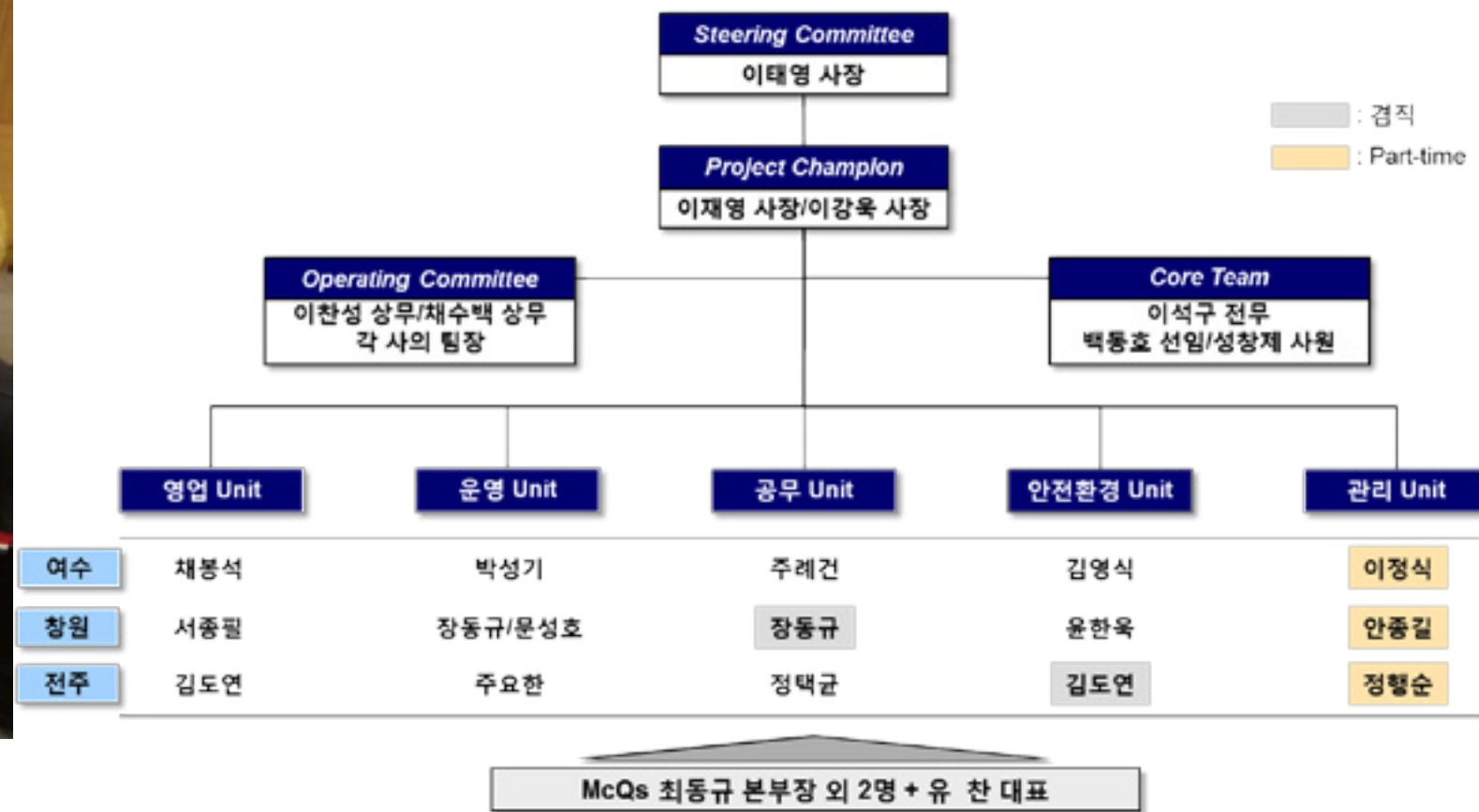
2014년 7월 1일 제주도 상호원에서 열린 Kickoff 행사 'TOP Academy'를 시작으로 ES부문의 KC환경서비스,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 3개 회사는 성과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 회사의 대표이사과 공무, 운영, 안전환경, 관리 팀장, KC그린홀딩스 기획팀 인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5주 동안 각 회사를 순회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현재 각 회사별로 큰 공사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바쁜 상황이지만 모든 임직원이 뜻을 모아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 도우면서 무더운 여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구슬땀을 흘렸다.



여수에서 Idea 워크숍을 진행중



TOP Project 진행중



TF는 여수에 위치한 KC환경서비스를 7월8일 시작으로 KC한미산업(창원), KC에코에너지(전주)를 순회하며 8월7일 SC(Steering Committee)보고일 까지 각 사이트를 돌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원가와 운영사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Baseline과 Target을 설정 했는데 이 목표는 단순한 원가절감이 아닌 생산성, 원가 경쟁력, 자본/자산 운영의 개선 전략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각 회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TF의 노력만큼 경영진을 포함한 3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Idea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 제안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임직원이 성과와 문화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첫 단추인 TS단계(Target setting)에서 도출해낸 데이터와 설정한 목표를 보고하고, 향후 PS단계의 (Problem Solving) 진행 방법에 대해 8월7일 전주 KC에코에너지에서 이태영 사장과 각 회사의 임원들이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다. 또 서종필 상무를 임직원 대표로 하여 프로젝트의 성실한 수행과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태영 사장에게 전달했다.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우리를 보며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자신감과 확신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모두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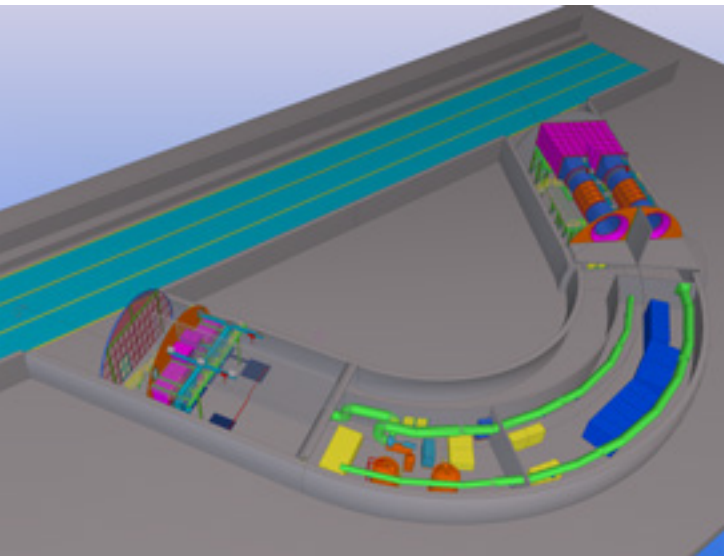
LCIN의 새로운 CEO Mr. Pradip Mukherjee

지난 7월 15일 Mr. Pradip Mukherjee 가 LCIN의 새로운 법인장으로 취임하였다. Mr. Pradip Mukherjee는 지난 23년간 ADOR사의 대표이자 COO로 근무해 왔으며, 그의 발전사업에서의 지난 경험들이 LCIN이 인도시장에서 좋은 파트너를 찾고, 진일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Mr. Pradip Mukherjee의 취임행사에서 이태준 전 법인장은 그의 전문성이 LCIN과 LCIN의 직원들이 힘겨운 시장 상황 속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Mr. Pradip Mukherjee는 취임사에서 KC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KC가 이룩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KC 이사회가 보여준 회사에 대한 열정과 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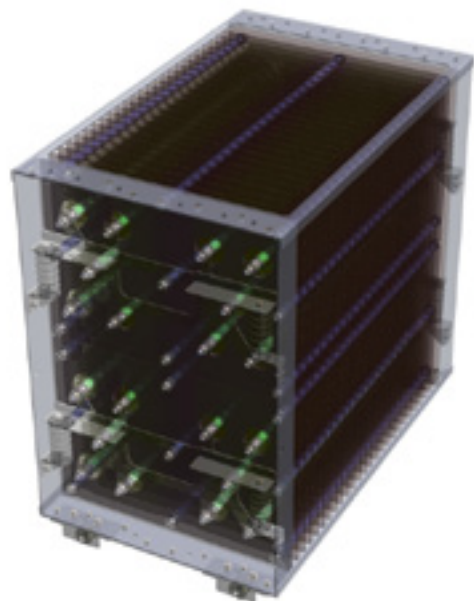
으며, 이를 계승해 LCIN의 새로운 모습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치열한 경제 환경 속에서 입지를 다지고 시장을 이끌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LCIN의 모습을 기대하며 Mr. Pradip Mukherjee의 취임을 축하하며, LCIN과 함께하는 그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WELCOME



KC코트렐, 터널전기집진기 7-2공구 수주



플랜트사업부 기후-에너지기술팀에서는 2014년 7월 강남순환도로 7-2공구 전기집진기 시스템 납품 및 관련설치공사 프로젝트를 대림I&S(주)로부터 수주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터널용 전기집진기 개발 후 첫 수주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2014년 7월 25일부터 2016년 5월 19일이다. 도로터널용 전기집진기는 2004년 '도로터널용 전기집진기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처음 개발하였으며, 2008년에는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하여 사업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13m/s 고유속에서 80% 이상의 효율을 얻기 위한 성능개선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강남순환도로에서 6, 7공구에서 요구하는 처리풍속 9~13m/s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수주를 통해 7-2공구와 짝을 이루는 7-1공구의 수주가능성을 높였으며, 공사실적 보유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자격 확보하게 될 것이다.

KC코트렐, P300 대상 기업 선정

KC코트렐이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P300 프로젝트(글로벌 조달선도기업 육성프로젝트)의 '글로벌 조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P300 프로젝트는 수출지원기관들이 우리기업이 국제연합(UN), 국제금융기구(NDB) 등이 진행하는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일괄 지원하는 범정부 해외조달지원 플랫폼 사업이다. 여기서 P는 조달(Procurement)을, 300은 300개 선도기업 육성을 뜻한다. 2011년 연 400억달러 규모의 해외 국제기구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100개 기업으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300개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P300프로젝트 대상 기업은 시장성(60%)과 재정건전성(40%)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대상 기업에게는 향후 1년간 벤더등록 및 입찰정보 지원(코트라), 중소기업 입찰/계약이행보증 한도우대(무역보험공사), 수출자금대출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조달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KC코트렐은 이번 글로벌 조달선도기업 선정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KC솔라에너지의 새로운 보금자리



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 2014년 7월 18 일(금) 마포구 서교동에 새로운 등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지구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태양광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KC 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C솔라에너지/성민경 (smk0128@kc-cottrell.com))
※ 변경된 KCSE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3-5 (양화로 125) 경남관광빌딩 4층



TWO
2010

KC그린홀딩스 JV(Joint Venture) 설립

지난 7월 11일 KC 그린홀딩스와 김기경 사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바이오 매스 및 Waste to Energy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KC 그린파워(주)에 양측이 합의 한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하기로 하였다.
KC 그린파워(주)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는 KC 코트렐에서 계약 범위에 따라 EPC 를 수행할 예정이다.



01 아이디어 내용 원가 절감, 품질향상, 생산성증대, 수익창출, 기타 수익성 개선

02 아이디어 출모기간 2014년 7월 10일 ~ 9월 30일

04 토상내용

03 참가대상 KC 환경서비스, KC 판매산업

KC 에코에너지 모든 임직원

제안대상

아이디어 제출 및 아이디어 평가 제안자 대상

토상대상	토상금액	토상기준	토상방법
제출	토상금/건	제출자 전원	현금
1등(1명)	20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2등(1명)	10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3등(1명)	5만원	제안서 제출 건수	현금, 상장

• 아이디어 제출은 해주, 제출 제출은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토상

제출대상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 대상

토상대상	토상금액	토상기준	토상방법
주요 베스트	10만원	승인된 아이디어	현금, 상장
최우수(1명)	50만원	유효효과(50%)	현금, 상장
우수(2명)	30만원	(재무적 효과)	현금, 상장
장려(3명)	10만원	유효효과(50%)	현금, 상장
재미 아이디어 (50) 제출자	1만원/건	실행 가능한 Idea	현금

• 중간 베스트 및 재검 아이디어 제출자 해주,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는 프로젝트 최종 보고일 토상

실행대상

토상대상	토상금액	토상기준	토상방법
아이디어	유효효과 1%	제안자 40%	현금
제안자, 실행자	(1년)	실행자가 60% 지급	

• 1년 후, 토상

Sustainable Development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움직이는 과녁”처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힘들다(Votaw, 2003; Lisa, 2006). CSR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CSR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학문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단체, 논자마다 CSR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성과”, “사회 공헌”, “기업윤리”, “사회적 반응”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경영 방식이나 회계제도, 투명성과 건전성 등 ‘기업윤리’ 측면을 강조한다.

둘째, CSR연구가 윤리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의 시각에서 접근되기 때문이다. 즉, CSR이 여러 학문의 시각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을 구성 요소로 하여 정의되므로, 각 구성요소의 바탕이 되는 학문의 시각이 변하면 CSR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CSR은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1989년 엑손 발데즈(Exxon Valdez)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는 환경문제가 부각되었고, 1990년대 초 나이키, 갭(Gap) 등 의류기업들의 저개발국 착취공장(sweatshop)문제가 부각되었을 때는 인권과 노동문제가, 2000년 초 엔론(Enron) 사태를 계기로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자의 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최성호 외, 2005). 이처럼 CSR은 각 국가의 특성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공통되는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사항도 있다. 이에 따라 CSR은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효율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는 프리드만의 입장에서,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이익을 내며, 윤리적이고 좋은 기업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는 캐롤의 입장까지 그 편차가 크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CSR 논의는 1953년 보웬이 자신의 저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서 처음 제기하였는데, 그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알맞게 자신들의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에 옮길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맥과이어는 그의 저서 『기업과 사회』(1963)에서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법적의무뿐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기업의 책임을 기업가의 의무 및 윤리로 정의하여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양적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이후 CSR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와 연동되면서, 경영자의 경영윤리보다는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책임 있는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이장원, 2006). 이를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는 캐롤인데, 그는 CSR을 사회적 성과모델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캐롤의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은 그녀 스스로 지적하였듯, CSR 영역들 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중첩되는 CSR 영역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후 CSR 연구는 정의나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증적 연구와 대안 모색 같은 보다 구체화된 작업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Clarkson(1995)은 이해당사자 모델을 사용하여 기업의 이해당사자를 ‘1차 그룹’과 ‘2차 그룹’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여기서 1차 그룹은 투자자,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를 포함하며, 2차 그룹은 기업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와 특별한 이해관계자 그룹(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용어 중에서 비교적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를 바라보는 기관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구분	정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업들이 자발적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자사의 기업활동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통합시키는 개념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	기업들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	법 준수를 뛰어넘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이니셔티브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위원회	기업이 법적 의무를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기업이 자사 활동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
국제사용자기구(IOE)	법 준수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의 기업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WBCSD)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지속경영발전기업협의회(KBCSD)	지속가능발전의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려는 경영활동





Bob Mastropietro 컨퍼런스 연설

Bob Mastropietro는 지난 6일 포틀랜드에서 열린 Council of Industrial Boiler Operators(CIBO) 배기가스 제어 컨퍼런스에서 “Achieving Boiler MACT Compliance with Reagent Injection and Existing ESPs”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건식배연탈황공정은 MACT절차에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 되었으며, 탈황공정의 위치와 규모,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Thank you, Heather Stevens

KC코트렐의 애프터마켓 사업개발 담당자로서 APC 산업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온 Heather Stevens가 KC코트렐이라는 울타리를 떠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Lodge Cottrell을 거쳐 2005년부터 KC코트렐과 함께해온 Heather Stevens는 그녀의 고향인 호주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그녀의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우리 모두 그 동안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미소를 그리워 할 것이며, 그녀의 새 삶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세계 최대 규모의 CFB 보일러, 전기집진기 설치

KC코트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입자 방출 포집을 위한 전기집진기의 제작, 공급,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550MW급 삼척 그린 파워 프로젝트는 4개의 새로운 석탄과 바이오매스로 작동하는 CFB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2호기는 2015년 봄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KC STO 폐지 계획

KC코트렐이 현재 사용 중인 KC-STO 사내 공용서버를 올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서버 내에 있는 활용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작업이며, 또한, 공용서버 보안의 취약성과 서버 용량 부족 및 서버 노후화로 인해 2014년내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된 진행계획은 8월말까지 해당 폴더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모든 폴더의 조회권한만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11월부터 정리가 완료된 폴더 이관을 시작으로 부분 폐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모든 공용서버의 K-ONE 이관 완료 후, 잠정 폐쇄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공용서버는 서버 사용연한에 따라 백업용 서버로 활용할 예정이다.

8월말까지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폴더는 별도의 이관작업 없이 폐지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